

Good things*

FREE

Volume 03

11-12 2013



Contents

04	Good News	연말 신제품 소개, Jielde Gallery Open!
08	Good Goods	FUTAGAMI Brass Trivet, M&B 폴딩체어
10	Good Information	그림처럼 아름다운 겨울 캠핑
26	Good City	취리히, 스위스
40	Good Story	스웨덴의 해피스톡홀름 브랜드 인터뷰
46	Good Day	호주에서 온 애니의 공연
48	Good Recipe	연말파티를 위한 카나페
50	Good Place	이탈리안 캐주얼 레스토랑 오차드1974
53	Good Gardening	아이비



NEW ARRIVAL! / Passport cover



발행 엠퍼블리싱_(주)티엠씨 인터내셔널 주소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3길 5 (동인동) 전화 02 325 4769 팩스 02 335 4769 홈페이지 www.market-m.co.kr
 기획 이현아 편집·디자인 김희진 사진 김소영 번역 복진하 광고 및 배포처 신청 help@market-m.co.kr

Market m*이 만든 출판사인 <엠퍼블리싱>의 Good things*는 라이프 스타일을 주제로 무료 배포되는 격월간지입니다.

서울 중심거리의 카페, 샵, 레스토랑 등지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광고나 배포를 원하는 분은 이메일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Good things* by TMC INTERNATIONAL INC. Copyright © 2013 All rights reserved.



SIWA 紙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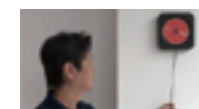
Design by Naoto Fukasawa

SIWA는 일본의 제지회사 ONAO와 산업 디자이너 나오토 후카사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만들어진 생활브랜드입니다.

일본 전통 종이인 와시를 통해 구김이 있지만 부드러우면서도 찢어지지 않는 "나오론" 소재를 개발하여 전통적이고 공업적인 제품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인테리어, 잡화 등의 실용품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디자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나오론은 여느 종이보다 튼튼하여 쉽게 찢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 제품에 응용되어서 가방, 안경집 등 일상용품이 차분한 컬러에 자연스러운 구김으로 소박한 매력을 보여줍니다.

Naoto Fukasawa



나오토 후카사와는 미니멀함을 추구하는 일본의 대표적 산업 디자이너로

세이코 엠스, 아이디오 도쿄를 거쳐 2003년 '나오토 후카사와 디자인' 을 설립하였습니다.

비트라 컬렉션, muji의 제품들, Lamy 볼펜, 이세이미야케의 시계 등을 디자인하였으며 생활용품 브랜드인 ±0, SIWA 등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 SIWA의 모든 제품은 마켓엠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Merry christmas & Happy new year

Good News* 1



크리스마스와 함께 2014년을 준비하는 신제품들을 만나보세요!



스탠드 달력



패브릭 달력



패브릭 사인



트리 초



주머니



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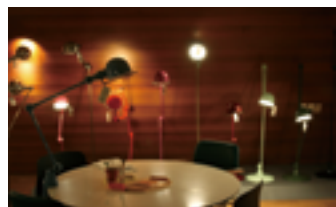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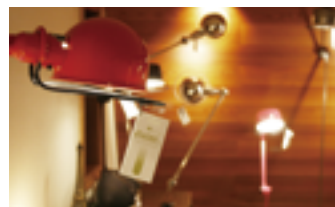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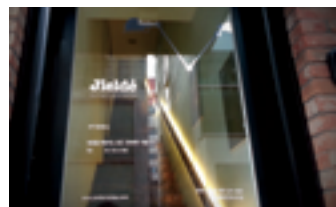


home-table deco fair 2013에서 Jielde Korea와 함께 하세요!

Jielde Korea에서는 홈 테이블데코페어 2013을 통해
Jielde 조명의 대표 모델과 더불어 프랑스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선보입니다.

기간 12월 12일 (목) - 12월 15일 (일) 까지 / 4일간

장소 서울 삼성동 COEX Hall C_D110



프랑스 Jielde 한국 공식수입원 / (주) 티엠씨 인터내셔널
Gallery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53-9 4F T 02 732 4769

www.jielde-kore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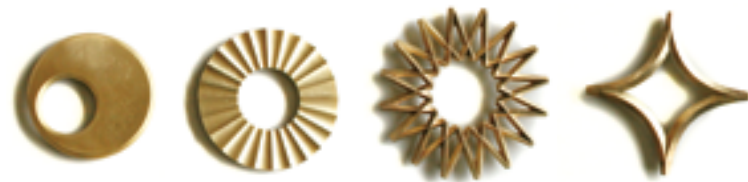
Jielde
Hand made in France since 1950



FUTAGAMI Brass trivet

Brand	FUTAGAMI
Size	Moon ϕ 130 x H12 mm Sun ϕ 150 x H12 mm Galaxy ϕ 180 x H12 mm Star W165 x D165 x H15 mm
Price	Moon, Sun, Galaxy 112,500 won / Star 98,500 won
Made in Japan	

후타카미 디자인의 대표적인 제품인 냄비받침은 각각 달, 태양, 은하, 별에 비유한 디자인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깊은 표면이 드러나는 황동 고유의 멋을 간직한 제품입니다.



FUTAGAMI

황동을 주소재로 생활용품을 만드는 일본의 금속 공예 브랜드입니다. FUTAGAMI는 표면을 닦거나 도금, 도장을 하지 않아, 황동 표면 그대로의 질감이 살아 있고 주조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이나 흔적 등을 간직한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제품입니다.



M&B Fabric folding chair

Brand	Market & Bistro furniture
Size	W470 x D510 x H750 x SH475
Color	■ Beige ■ Burgundy ■ Navy ■ Green
Material	Steel tube, Fabric
Price	58,000 won
Produced of Taiwan	

원형 철 파이프를 이용한 폴딩 체어입니다. 베이지색상의 프레임은 몰루레 나무를 사용한 M&B 가구 색상과 잘 매치되며, 접이식이기 때문에 보관과 적재면에서 실용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MARKET&BISTRO FURNITURE

Market & Bistro Furniture는, 마켓앤의 원목가구 및 소품 브랜드 입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자연과 공존하는 이상적인 삶을 지향합니다. 원목가구는 오랜시간 함께 할수록 자연스러운 멋이 더해지고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며 그 사람의 시간, 공간과 함께 어우러지며 존재합니다.

그림처럼 아름다운 겨울 캠핑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은 서랍 속의 니트를 꺼낼때 즈음을 기다리곤 합니다.
알록달록한 낙엽이 드리우는 산과 숲 그리고 차가워진 공기는
무더운 날씨와 수많은 사람에 치여 시들어 있던 캠핑에 대한 열정을 다시금 피어 오르게 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따뜻하고 낭만적인 겨울 캠핑을 계획해 보는 건 어떨까요?



가을, 겨울 캠핑에는 추위로 부터 온몸을 녹여주는 모닥불과 커피, 곶차 등의 따뜻한 여유로움이 가득합니다.
아무도 밟지 않은 눈 내린 숲길을 걷고,
어느새 얼어버린 강가는 우리 모두를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게 합니다.





가을날에는 바삭거리는 낙엽 위에서,
겨울날에는 뽀드득 거리는 눈 위에서,
그렇게 조금 더 특별한 하룻밤은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줍니다.



 동계 캠핑 필수 아이템!

겨울용 침낭과 담요, 핫팩 그리고 개인 기호와 캠핑장 시설 유무에 따라 석유 또는 가스 난로, 전기장판 등



※ 추운 날씨와 불규칙적인 상황이 빈번한 동계 캠핑에서는
일기예보 확인, 난방기구 사용법 등 안전에 관한 사항들을 숙지하여 좀 더 따뜻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 바랍니다.

Blanket for winter

인디언 전통의상에서 모티브를 얻어 제작한
이국적인 색감과 패턴의 어네이티브 블랭킷은
클래시컬한 아웃도어 로맨스를 연출하기에 좋습니다.
작고 가벼워 휴대가 쉬우며, 물세탁이 가능한 높은 내구성과
부드러운 질감을 보여줍니다.

www.a-native.com를 통해 지금 만나보세요!



Camping in the City

OUTDOOR KITCHEN

아웃도어 키친은 국내 최초의 아웃도어 라이프 스타일 레스토랑으로, “도심 속의 캠핑”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야외에서 직접 아웃도어 용품을 이용해 다양한 바베큐 요리와 주류, 음료를 즐길 수 있는 자유로운 느낌의 공간입니다.





책상 A
W1100 D500 H750
348,000₩



책상 B
W1100 D500 H750
458,000₩



책상 C
W1100 D500 H750
478,000₩



책상 B-L
W1300 D600 H750
628,000₩



책상 C-L
W1300 D600 H750
678,000₩



책상 S
W750 D500 H750
328,000₩



유아책상
W590 D500 H500
238,000₩



유아의자
W270 D287 H525 SH280
74,000₩



식탁 S
W740 D740 H750
458,000₩



식탁 M
W1290 D740 H750
648,000₩



좌탁
W1000 D500 H320
328,000₩



협탁 S
W350 D330 H450
158,000₩



협탁 M
W920 D390 H440
248,000₩



2단 서랍협탁
W400 D345 H455
198,000₩



서랍화장대
W800 D420 H750
478,000₩



전신거울
W460 D50 H1400
178,000₩



패브릭의자
W375 D475 H850 SH460
178,000₩



기본의자
W375 D475 H850 SH435
148,000₩



패브릭스툴
W310 D250 H415
108,000₩



기본스툴
W310 D250 H400
98,000₩



긴의자
W1130 D350 H440
258,000₩



패브릭 폴딩 체어 Beige / Burgundy / Navy / Green
W470 D510 H750 SH475
58,000₩



폴딩 체어 Beige / Navy
W450 D490 H750 SH450
58,000₩



TV장 기본형
W980 D450 H335
308,000₩



TV장 서랍형 S
W1350 D450 H350
578,000₩



6단 서랍장
W1160 D400 H590
798,000₩



3단 서랍장
W430 D500 H750
368,000₩



5단 서랍장
W390 D400 H1230
698,000₩



사다리
W430 D70 H1490
168,000₩



책장 A
W877 D300 H867
428,000₩



책장 B
W450 D300 H1164
328,000₩



3단 책장
W900 D320 H1240
348,000₩



5단 책장
W900 D320 H1535
428,000₩



침대 A
Super single
W2100 D1190 H870
1,258,000₩
Queen
W2100 D1600 H870
1,568,000₩



침대 B
Super single
W2100 D1190 H870
1,128,000₩
Queen
W2100 D1600 H870
1,388,000₩



침대 C
Super single
W2100 D1190 H320
988,000₩
Queen
W2100 D1600 H320
1,228,000₩



M&B Furniture 패키지 세트와 얼리버드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가깝게 만나보세요!

1 Package Set

알찬 구성으로 선보이는 M&B Single / Couple 패키지 세트를 20% 할인된 가격으로 함께하세요!



Single set

침대 SS + 책상 + 폴딩체어

- 각 품목별 디자인 및 색상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패키지 세트는 도서지역 외 전국 무료배송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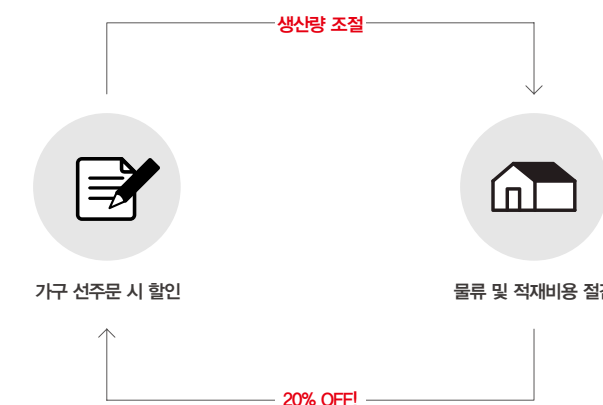
Couple set

침대 Q + 책상 + 폴딩체어 + 식탁 + 의자

2 Early-bird program! 🐦

M&B 가구 구매를 계획하고 있나요?

그럼, 미리 주문하셔서 얼리버드의 파격적인 혜택을 누리세요!



얼리버드 프로그램은

조기 주문에 따라 공장의 생산량을 조절하여 발생한 비용절감을 고객에게 돌려드리는 혁신적인 가구 판매 시스템입니다.

정상가에서 2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며 주문 후 2개월 후에 배송됩니다.

Zürich

국제공항이 자리한 관문도시이자 스위스 최대 인구를 자랑하는 도시 취리히는 금융업과 상공업이 발달한 경제 중심지입니다. 풍부한 생활, 교통, 복지,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여러 차례 선정된 곳입니다. 겨울에 찾은 취리히는 크리스마스 트리와 조명이 은은하게 도심을 비춰 연말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있었습니다. 곳곳에 동화 같은 풍경이 가득한 취리히의 매력에 빠져볼까요.



Infomation	
위치	스위스 취리히주
면적	87.8km ²
인구	약 36만명
시차	-8:00 (summer time -7:00)
홈페이지	http://www.stzh.ch/



스위스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로망슈어 총 4가지의 공용어를 사용하지만 공공사인에 헬베티카 서체를 사용하여 명확하고 깔끔하게 표시하고 있다.





취리히 도심에 살며시 깔린 안개와 축축히 내리는 겨울비가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취리히의 겨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2월~2월 즈음이다.
이 시기에 눈이 많이 내리는 편이며, 눈 내리는 취리히는 고즈넉함을 자아낸다.
하얗게 변한 풍경에 잠시 감상에 빠진다.



스위스를 대표하는 리사이클 브랜드는 그들이 추구하는 디자인 철학과 매장의 건축, 인테리어까지 모두 잘 어우러지고 있었다.





크리스마스 장식과 함께 연출된 거리의 상점들은 겨울 분위기를 내며, 다양한 연말 축제들이 펼쳐져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기 좋은 곳이다. 취리히에서 보내는 로맨틱한 크리스마스, 그 상상만으로도 따뜻한 온기가 느껴진다.





la
eskimo

COFFEE AND DESSERT

546-3, SHINSA-DONG, GANGNAM-GU, SEOUL

WWW.TOAST-AND-CEREAL.COM



취재 이현아 번역 복진하 사진 Ulrika Nihlén, Karin Björkaust

스웨덴 스톡홀름의 제품 디자인 브랜드 HAPPY sthlm의 브랜드 인터뷰입니다.

This is a brand interview with HAPPYsthlm who makes design made of various materials in Stockholm, Sweden.



designers Katarina Andersson, Kajsa Aronsson and Caroline Lindholm



HAPPYsthlm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HAPPYsthlm은 Katarina Andersson, Kajsa Aronsson와 Caroline Lindholm이라는 각 분야의 역량 있는 디자이너들이 2007년에 설립한 스웨덴의 제품 디자인 브랜드입니다.

카타리나 앤더스는 Design House Sthlm(인테리어 디자인 제품을 판매하는 스웨덴의 회사), Villeroy & Bosch(고급 욕실가구에서 식기에 이르는 독일의 사기 제품 제조 회사), 이탈리아 생활브랜드 디자인 회사 COVO 등에서 일한 경력을 바탕으로 사기와 유리를 이용한 제품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카자 아론스는 Frösö Handtryck(스웨덴의 핸드 프린팅 섬유 회사), Klippans Yllefabrik(스웨덴의 천연 섬유 전문 회사)과 IKEA(스웨덴의 토탈리빙회사)등의 회사에서 패턴 섬유들을 작업하며 텍스타일 디자이너로서의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캐롤라인 린드홀름은 은세공으로 독특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세공전문 디자이너입니다. 스톡홀름에서 열린 'Nutida Svenskt Silver' (스웨덴의 대표적인 은, 금속 세공 전시회)에 참여하였으며, 다양한 국제 전시회에 보석과 은 제품을 전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Please introduce about HAPPYsthlm to our readers.

HAPPYsthlm (sthlm = Stockholm) is a Swedish design company that was established in 2007 by the designers Katarina Andersson, Kajsa Aronsson and Caroline Lindholm, all three with extensive experience in the industry.

Katarina Andersson is a product designer who has in addition to commissions for the industry worked with an exclusive production of small

series in porcelain and glass. As a designer, Katarina has worked for Design House Sthlm, Villeroy & Bosch, the Italian design company COVO etc.

Kajsa Aronsson is a textile designer who has worked with patterned fabrics for Frösö Handtryck, Klippans Yllefabrik and IKEA among others. Kajsa also has many years of experience in specially designed fabrics for churches and public spaces in collaboration with Kasthall.

Caroline Lindholm is a silversmith with a unique production. She has had highly successful exhibitions at Nutida Svenskt Silver in Stockholm. Caroline has also taken part in several international exhibitions with her jewellery and silver objects.

각기 다른 세 분야의 자연스러운 조합이 흥미롭습니다. 어떤 계기로 함께하게 되었나요?

우리들은 스톡홀름의 중심인 소더맘(Södermalm)의 작업실을 여러 해 동안 함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공간을 함께 쓰고 지내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일하는 과정을 존중하게 되고 작업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각자 전문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작품과 작업에 대해 토론하면서 새로운 접근 방법을 배울 수 있었고 서로의 흥미로운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3명의 지식과 경험, 목표들을 공유할 수 있어서 더 도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서로에 대한 개발 평가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평가가 창작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발 평가를 통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계속 발전시켜 우리는 HAPPYsthlm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Maito vase



HAPPYzoo series

How did you three meet since you were involved in different fields each other?

We have shared a studio for several years in a courtyard house on the island of Södermalm in central Stockholm and followed each others' working processes. An idea began to develop that we could create something together that would combine their knowledge, experience and visions.

We often found interesting and new approaches when we discussed our work together and we started to use regular development appraisals, that have opened up the often lonely creative process.

The ideas developed and grew and finally we started HAPPYsthlm.

HAPPYsthlm의 제품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나요?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의 발전을 위해 협업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각 분야의 소재에 대한 것이나 노하우를 공유하여 작은 제조업체와 함께 제품을 만들어 나갑니다.

모든 디자인 제품들은 섬세한 부분에서 품질로 연결되기 때문에 소규모 업체와 일을 하는 것이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다양한 소재를 통한 제품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HAPPYsthlm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ould you tell us about products that HAPPYsthlm designs?

The close and creative collaboration between us - Katarina, Kajsa & Caroline – has helped us move forward. Sharing each others materials and know-how has opened up spaces for new ideas and paved the way for future projects. HAPPYsthlm has chosen to work with manufacturers that are, like us, interested in details, material and quality. All our

different products and sections are linked with eachother; A design language that can be enlarged, reduced, changed, and used to create various objects in a variety of materials is characteristic for HAPPYsthlm.

가장 대표적으로 대중의 호응을 얻었던 제품은 무엇인가요?

마이토(Maito)라는 꽃병이 단품으로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꽃병이라는 품목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의 제품들도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 흥미롭고 재미있는 일입니다.

What is the most popular product?

Our vase Maito has been the most popular single product, but over all is it interesting to see that we sell almost as much from the others fields.

보석 중 작은 동물 팬던트가 특징인 HAPPYzoo 시리즈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HAPPYzoo는 스웨덴의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박물관의 외관 모습을 티셔츠에 디자인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 티셔츠는 오래된 집들과 북유럽의 동, 식물들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모습이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주제로 보석을 만들어 HAPPYzoo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아이들과 어른들을 위한 제품입니다.

HAPPYzoo series is famous for the small animal pendants. Could you tell us more about HAPPYzoo?

It started as a T-shirt front print for the oldest and most famous outdoor museum in Sweden. A design with old houses, Nordic animals and plants that are represented at the museum.

We decided to design jewelry on the same theme and HAPPYzoo was born. A collection for both children and adult animal lovers.

컵과 그릇의 모양이 독특한 “Hamla” 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컵과 그릇으로 구성된 Hamla (영문으로 Prune: 가지치기의 의미)는 사기로 만들어졌고 흰색, 검정색 그리고 밝은 푸른 빛의 색을 띠고 있습니다. Hamla는 과일나무가 매년 가지치기를 하는 것에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손잡이 부분이 나무의 잘라진 가지 부분을 연상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Hamla” is known for the uniquely shaped cups and dishes. Please give us a brief introduction of “Hamla”.

The cup and bowl “Hamla”[English: Prune] are manufactured in stone-ware ceramics and are available in white, black and light blue. The idea for “Hamla” comes from fruit trees, and their annual pruning. The handle is reminiscent of a stylised pruned branch.

Hamla



여러 텍스타일 디자인 제품 중 가장 애착이 가는 제품이 있나요?

우리는 제품의 종류에 맞게 디자인된 세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공원(Park)시리즈의 패턴은 달리기를 즐기는 사람의 수건에도 어울리도록 프린트되어 있습니다. 오렌지 농원(Orangeriet)시리즈는 큰 제품이나 커튼에 적합하도록 패턴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Flora)시리즈는 처음에는 우리가 쓰는 숄 제품용을 위해 사용되었는데 성장하는 줄기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What is your favorite Textile design?

We have three different patterns that are all made to fit different kinds of products. Park is printed as a pattern that is suitable for towels and runners. Orangeriet is an all over pattern that fits larger products and curtains. Flora is a fragile growing stalk that first was created for our shawls.

뉴욕, 독일 등 다양한 해외 박람회에 참여했는데, 제품에 대한 반응은 어땠나요?

스웨덴의 풍경을 보여주는 HAPPYsthlm이 현재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스칸디나비아 비아식 디자인에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디자인과 품질이 중요하기에 작은 부분까지 정성스럽고 섬세하게 제작된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You have been participating in various overseas exhibitions, held in New York and Germany. How did they react to your products?

It's very obvious for us when we show our things outside of Sweden that HAPPYsthlm is working in a strong Scandinavian design tradition in a contemporary way. It is also very appreciated that our products are manufactured by small producers in Sweden.



www.happystlm.se

HAPPYstlm을 만날 수 있는 해외 다양한 매장의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제품은 미국, 영국, 핀란드, 독일, 일본, 아이슬란드, 네덜란드에 출시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각 나라 도시의 다양한 매장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Where can we visit HAPPYstlm when we are abroad?

We are today represented in USA, UK, Finland, Germany, Japan, Iceland, St Barth and Netherlands.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our website.

Market m*은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2011년 봄, 서울에 진출하기로 생각하면서 우리와 교류하던 한국의 디자인과 학생에게 한국의 인기있는 디자인 회사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학생의 소개로 리스트를 받은 후 어떤 회사가 HAPPYstlm과 가장 잘 어울리는지 조사해 보았는데 그 중 Market m*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How did you know about Market m*?

A design student from Korea contacted visited us last spring. When HAPPYstlm decided to go to Seoul we asked for interesting Korean design companies, shops and blogs. She mailed us a long list and we then researched to figure out which company would have the best fit with HAPPYstlm.

그렇게 하여 멀리 스톡홀름에서 한국까지 오셨고, Market m*을 방문하셨습니다.

서울에서의 느낌과 Market m*의 인상 깊었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서울은 굉장히 현대적이고 도시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서울 도심 속에 흔재해 있는 한국의 전통과 문화유산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서울은 그러한 전통적인 매력을 지키면서도 도시의 멋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친절함으로 기억되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속에 편안하고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Market m*의 제품과 매장의 디자인이 잘 어우러지는 모습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상품뿐 아니라 전체의 컨셉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양질의 제품과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Market m*을 만나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You have been to Korea recently, How did you feel about Market m* in Korea? What impressed you the most?

Seoul was a city where we met a very contemporary, alert and cutting edge urban community alongside a deeply rooted feeling for tradition and Korean cultural heritage. It was easy for us as visitors because people were so helpful and friendly. It is impressive for us to see how well you coordinate your designs in products. Something that we found very significance for the whole store concept.

We felt a connection with your distinct idiom and high quality products.

앞으로의 HAPPYstlm 모습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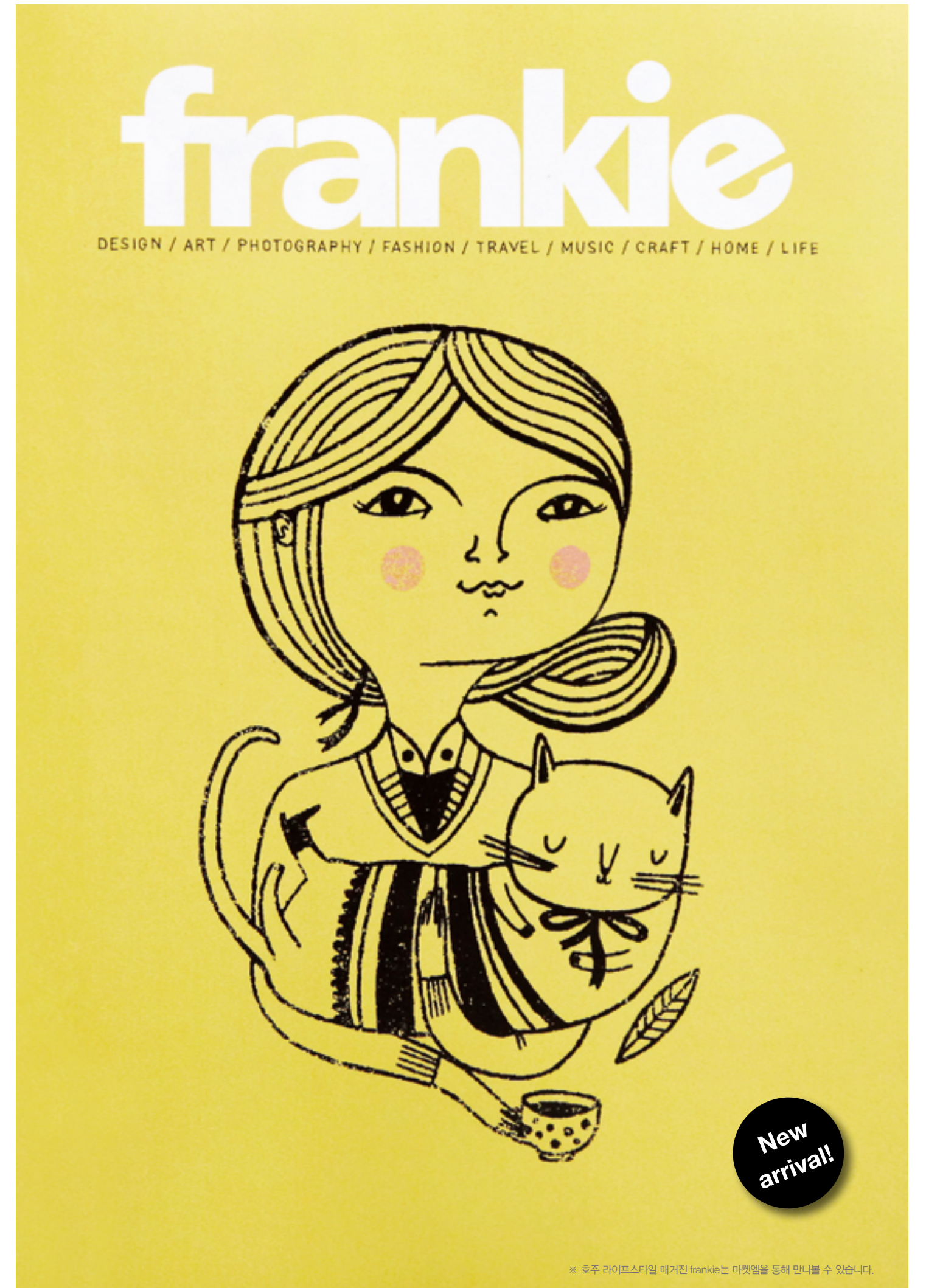
우리는 최근 미국과 독일 이 두 나라의 수출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나라에서의 HAPPYstlm 디자인에 대한 반응이 좋다면, 한국과 일본으로의 본격적인 진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에서도 곧 만나뵙길 기대합니다!

Could you tell us about the future plans for HAPPYstlm?

We have recently started to collaborate with distributors in USA and Germany, the two export markets with which we decided to start. We believe that Korea and Japan are the next step to take as we have a strong feeling that our design language will find a place in these count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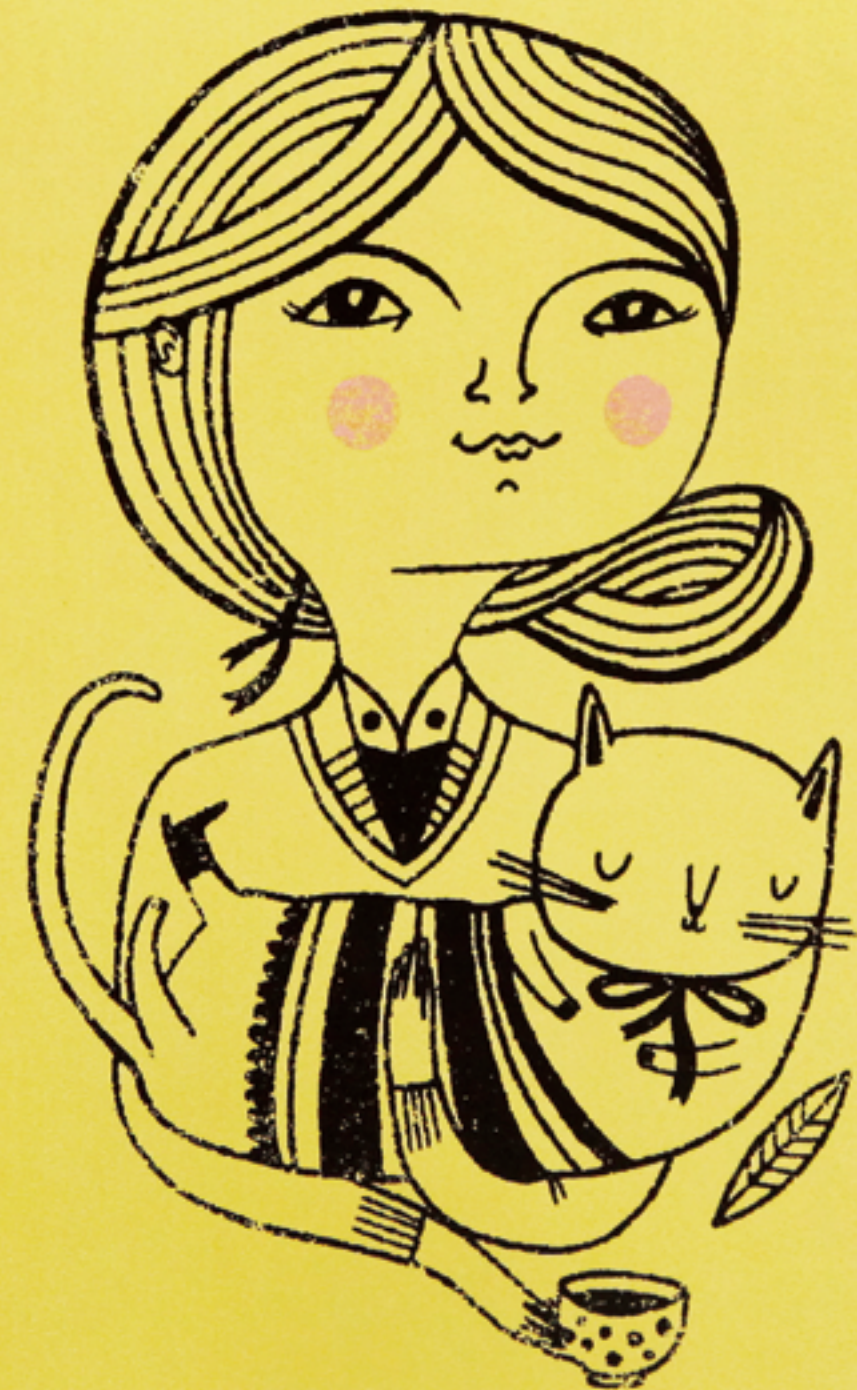
인터뷰에 응해주신 HAPPYstlm의 디자이너 Katarina Andersson(카타리나 앤던스), Kajsa Aronsson(카자 아론스)와 Caroline Lindholm(캐롤라인 린드홀름) 세분에게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We would like to thank three designers of HAPPYstlm.



frankie

DESIGN / ART / PHOTOGRAPHY / FASHION / TRAVEL / MUSIC / CRAFT / HOME / LIFE



New arrival!

※ 호주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frankie는 마켓엠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온 애니의 공연! Annie's Small Concert!

마켓엠의 호주 비즈니스 파트너, Our corner store 미란다 사장님의 딸 애니가 2주 동안 한국에 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공연을 통해 꾸준히 음악 활동을 해온 애니는 한국에서도 기타와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는데,

우연히 신사동 가로수길 카페의 제안으로 어느 주말, 라이브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작곡한 노래들을 중심으로 한 애니의 공연은 매력적인 목소리 그리고 기타 연주와 더불어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이 뜻깊은 추억으로 오랫동안 함께하길 바랍니다.

Annie, the daughter of Miranda, the owner of Our corner store (Market m*'s business partner in Australia), had really fun with Market m* family members in Korea for 2 wee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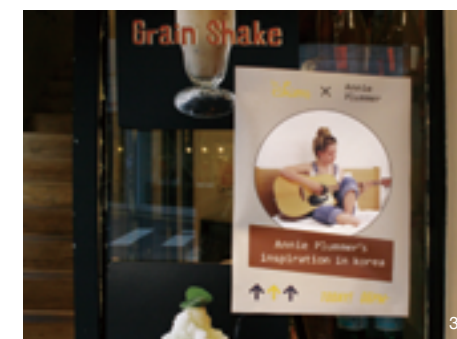
Annie who had had experiences in holding small music concerts in Australia spent relaxing time with her guitar in Korea, and by chance, she got an offer from a café in Garosugil, Shinsa-dong to hold a live concert on weekend.

Her concerts was made up of songs she wrote and composed,

and she got an ovation from many people due to her attractive voice and wonderful guitar playing.

We hope that all things she experienced in Korea remain with her unforgettable memories.

1. 카페 라 에스키모에서의 공연
2. FIN Cafe에서의 거리 공연
3. 애니의 공연 포스터
4. 공연에 즐기고 있는 사람들
5. 매장 앞 기념 촬영



※ 더 많은 이야기는 마켓엠 공식블로그 www.marketm-life.com 에서 함께 하세요!

canape

연말파티를 위한 카나페

크리스마스나 연말파티에는 간편하면서도 보기 좋은 핑거푸드가 제격입니다.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카나페가 어떨까요?
 가족, 친구, 연인 등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즐거운 시간을 위해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어 보세요!

재료

베이직 크래커, 햄 2장, 치즈 2장, 참치1캔, 마요네즈 3큰술, 양파1/2, 파프리카 1/5개, 방울 토마토, 청포도, 어린 잎



만드는 순서



1. 양파와 파프리카를 잘게 썰어 참치와 함께 마요네즈와 섞어줍니다.



2. 크래커에 올릴 재료들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준비해 둡니다.



3. 크래커 위에 보기좋게 차곡차곡 올려주면 완성!

햄치즈 카나페 _



참치 카나페 _





1. 시원한 느낌의 높은 천장이 인상적인 내부
2. 테라스와 함께하는 외부
3. 다양한 식물들이 어우러지는 입구 테라스
4. 신선한 재료로 만든 담백한 맛의 화덕 피자

신당주차장

신당역 | 충무아트홀 | 스타벅스 | *Orchard* 1974 |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Orchard

1974

Add 서울 중구 신당동 250-14
 Tel 02-2252-1974
 Open 11:00 - 10:00 (일요일 휴무)

오차드1974는 지난 여름 7-8월, 두 달 동안 마켓एम에서 인테리어 공사와 전반적인 브랜딩을 진행한 이탈리아 레스토랑입니다. 높은 천장과 더불어 크게 뚫린 채광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은 공간에 여유로움을 더해주며 곳곳에 놓여진 다양한 식물과 함께 오렌지색 포인트 컬러가 인상적인 곳입니다. 신선한 재료로 만든 화덕 피자과 샐러드, 파스타 그리고 다양한 음료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Stacking storage molded pulp box

골판지와 신문 폐지를 재활용하여 제작한 RE_STANDARD의 펄프박스는 본체와 뚜껑의 구조적인 형태에 따라 비교적 내구성이 강하고 5단까지 적재할 수 있어 공간활용이 좋습니다. 또한, 정리하기 어려운 물건을 담아 선반이나 현관 등에 배치해 놓으면 펄프 소재 특유의 느낌이 멋스러운 제품으로 S,M 두 가지 사이즈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RE_STANDARD

PALM GRAPHICS DESIGN

일본의 대표적인 디자인 문구 브랜드인 HIGHTIDE사의 환경보호 프로젝트 브랜드로 상품화된 많은 종이제품의 친환경성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트 그룹 Palm Graphics Design이 기획한 RE_STANDARD 제품들은 친환경 소재와 가공 방식을 사용하여 환경보호 메시지를 담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호 사업을 장려하는 비영리 단체 1% for the planet의 멤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RE_STANDARD의 모든 제품은 마켓एम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Good Gardening*



아이비_ Ivy

생명력이 강하고 병충해와 추위, 건조에도 강하며 실내 공기정화 능력도 뛰어납니다. 줄기가 길게 늘어지면 잘라내서 물꽂이 해주어도 금세 뿌리가 나와 수경재배가 가능합니다. 건조한 환경에서도 잘 견디기 때문에 물을 분홍이 완전히 말랐을 때 줘도 상관이 없으나, 분토가 완전히 마르면 잎이 다갈색으로 변합니다.



원형화분_Silver



시약병 S_Brown
빈티지유리병 S_typo

Wednesday 71

Wednesday71은, 마켓एम의 핸드메이드 소품 브랜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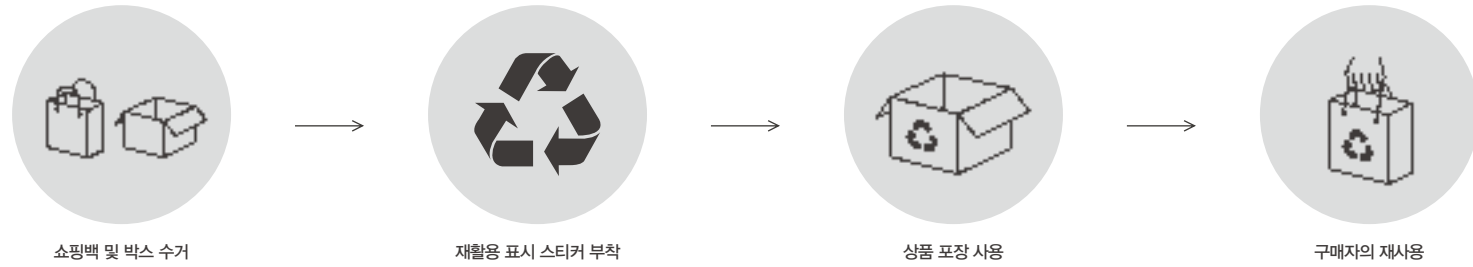
현대인의 바쁜 생활 속에서 일주일에 한 번의 자연과 함께 보내며 여유를 찾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식물들과 함께 집을 꾸미는 가드닝을 통해 생활 공간 속에 새로운 가치와 경험해보세요!

We think green, Protect our pla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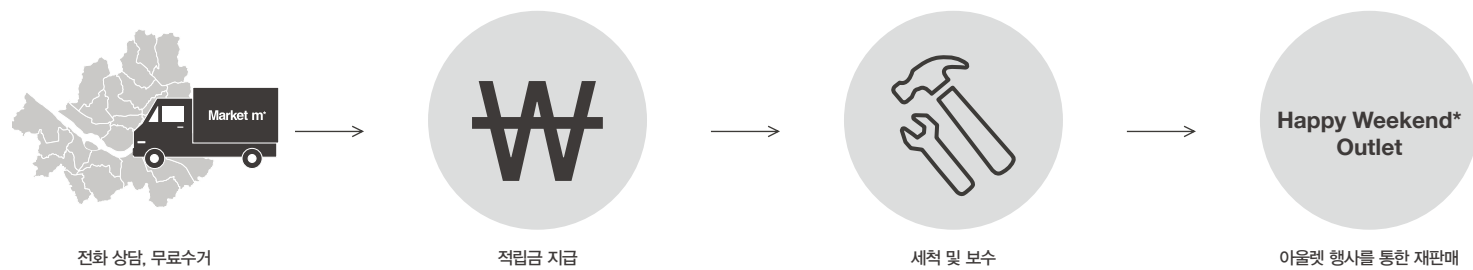
Recycle & Reuse, Reduce

마켓엠에서는 다양한 환경보호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① 오프라인 매장은 주말에 재활용 쇼핑백을, 온라인 매장은 재활용이 가능한 박스를 수집하여 택배 발송에 사용합니다.



② 구매 후 사용하지 않는 M&B Furniture 제품을 수거한 후 세척, 보수하여 아울렛 행사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재판매합니다.



1% for the planet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아웃도어 브랜드 기업인 파타고니아의 창업자 이본 추나드와 블루 리본 플라이즈의 대표 크레그 매튜스가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 단체입니다. 회원 기업들은 연간 매출의 1%를 환경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2,200개 이상의 비영리 단체에 기부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을 비롯한 38개국에서 2,500개 이상의 회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1% for the planet은 자연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기업들의 동맹입니다. 이에 참가하는 기업은 사업의 이익과 손실이 지구 환경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환경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지위를 확립해 나갑니다.

www.onepercentfortheplanet.org

(주)티엠씨인터내셔널은 2011년부터 1% for the planet의 멤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KOREAN WOMEN'S DOCUMENTARY SPECIAL
PLEASE TELL ME YOUR STORY

한국 다큐멘터리 특별전

이토록 다양한 여성들

2013.12.6 FRI - 12.15 SUN

www.kwds.or.kr

